

# 유언비어·가짜뉴스 난무 '강진의 고통'

여고생 사망 사건 관련 부모 범행 연루 의혹 매도 등도 넘어  
용의자 운영 식당 알바생 성폭행·실종 등 대부분 사실무근  
강력범죄 최하위인데 인터넷서 범죄도시 비하 등 이미지 타격

강진 여고생 이모(16)양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한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유언비어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슬픔에 잠긴 이양 유가족까지 매도하고, 강진 자체를 범죄도시로 몰아가는 등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강진은 '5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전남은 물론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치안우수지역'으로, 범죄도시와는 거리가 먼 곳이다. 그동안 '남도답사 1번지'로 전남관광의 한축을 견인해온 강진군은 지역 이미지 왜곡에 따른 관광산업 붕괴 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4일 강진군과 강진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일부 언론과 온라인 SNS상에서는 '3개월 전에도 용의자 김모(51)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이 실종됐으며 한달 전엔 김씨가 식당 여직원을

성폭행해 고소를 당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실제 김씨의 식당에서 수년 전에 고등학생 홀서빙 아르바이트 채용 광고를 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내용은 사실처럼 굳어지고 있다. 강진경찰은 "사실무근이다. 실종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도 없다"며 "여직원 성폭행설도 성폭행 사건 자체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숨진 이양 가족에 대한 유언비어도 심각한 수준이다. 시신이 발견된지 2일 만에 부모가 이양 시신을 화장한 것을 놓고 각종 추측성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2차 부검에 따른 정밀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범죄와 연루된 이양의 부모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서둘러 화장을 했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수사에 필요한 시료를 충분히 확보했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가족에게 시신을 인계한 것"이라며 "시신 화장 여부는 이번 수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 초기 이양이 친구에게 보냈다는 가짜 메시지가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진짜처럼 유포돼 경찰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일부 언론은 이양이 집을 나서기 전 친구에게 "나는! 내일 알바가! 그러니 페메(SNS 메시지) 잘 봐야해 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를 놓고 글 뒤에 붙은 'ㅋㅋ'의 의미에 대해 아르바이트가 조건만남이었다고 추측했고, 이양과 이양의 친구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이 폭증했다. 경찰은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례적으로 메시지 원본을 공개하고 "실제 메시지는 'ㅋㅋ'가 아닌 'ㅠㅠ'가 쓰여 있었다"며 "이양의 친구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용의자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이양과

연락한 내역이 나오지 않자, 김씨가 2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유언비어가 돌면서 수사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각 언론에 공지문을 보내 "용의자의 휴대전화는 본인 명의 1대 뿐이고 특이사항 없음이 확인됐다"고 알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 같은 유언비어를 사실인양 짜깁기한 뒤 관련 기사에 댓글 등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강진은 물론 전남 자체를 범죄지역으로 몰아가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은 타지역에 비해 사건·사고가 없는 지역"이라며 "강진 기피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만큼 각 부서별로 대책 마련이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6년 전국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등)는 총 2만5749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평균 105.9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반면 전남도내 22개 시·군 평균은 38.7건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특히 강진은 8건으로, 전남에서 가장 낮았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 몰카 영상 유포 '사이버테러' 간주 경찰 전문인력 투입 적극 수사키로

경찰이 몰카카메라(몰카) 영상 유포와 같은 불법 촬영물 범죄를 사이버테러에 버금가는 사안으로 취급해 적극적으로 수사한다. 경찰청은 "해킹 사건 등을 담당하는 경찰청과 광주·전남 등 전국 지방경찰청 소속 사이버테러 수사관 159명을 이같은 불법촬영 범죄 수사에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주로 난도 높은 사이버 사건을 수사하는 사이버테러 수사관들은 경찰청이 8월 24일까지 운영하는 불법 촬영물 집중단속 기간 각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함께 불법 촬영물 공급망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그동안 경찰이 시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단체로부터 제보받은 불법 음란사이트를 우선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이 파악한 사이트는 860곳에 달한다. 수사 중인 불법 촬영물은 방심위와 수사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삭제·차단 조치한다. 영상물이 계속해서 유포돼 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인 삭제·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은 또 불법 음란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서 유포되는 불법 촬영물을 자동 탐지하고 방심위와 연계해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추적 시스템을 오는 10월 가동 목표로 개발 중이다. 경찰은 외국에 서버를 둔 단속 사각지대로 여겨진 불법 음란사이트 수사도 강화하고자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포괄임금제 계약했어도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돼"

대법 "추가로 급여 줘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그 액수를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차이가 나는 만큼을 추가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란 통상의 근로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주는 방식을 말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4일 "경비원 출신 김모씨가 근무했던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이 '병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이 최저임금과 비교할 김씨의 시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시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했다"면서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에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소부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0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병원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김씨는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 월 100만원,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월 110만원,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월 116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씨가 받은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2272·2636원으로, 당시 최저 시급인 4110원보다 1500원 정도 적은 액수였다. 김씨는 최저 시급만큼의 급여를 더 달라고 했지만, 병원 측은 "적법하게 포괄임금 계약을 맺고 돈을 줬던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극단 단원 상습 성추행 혐의 이운택 전 감독 보석 청구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운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측이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앞서 이 전 감독 측은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 신병이 풀려날 경우 피해자 측 증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다리 위 기관차-승용차 충돌 '아찔' 4일 오후 1시 14분께 순천시 조곡동에서 단행 기관차(객차를 연결하지 않은 기관차)와 아반떼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고 차량이 다리 위에 이슬이슬하게 걸려 있다. 이 사고로 정모씨가 운전하던 아반떼 차량이 20m를 끌려 가면서 구겨졌지만 차량 운전자 정씨는 충돌 직전 차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남경찰청 제공>

## 도박에 빚까지... 절도범 전락한 공기업 직원

성인게입장서 돈 훔치다 적발 친 혐의(절도)로 이모(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공기업 직원인 이씨는 3일 새벽 4시께 영업을 끝난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성인게입장에 몰래 침입

해 계산대 서랍 속에서 현금 643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조사결과 이씨는 평소 게임장에서 PC 도박을 하며 업주가 출입문 열쇠를 보관하는 장소를 눈여겨본 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도박에 빠져 2억여원의 빚을 지는 바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게 진술했다. 전과 2범인 이씨는 다른 사람 웃을 흉친 절도죄로 집행유예 1년을 받고 아직 끝나지 않는 상태다. 경찰은 이씨가 공기업 직원으로 도주할 우려는 없으나,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여성 건설노동자 추행·성희롱한 현장소장 실형

○"순댓국집에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성 건설노동자를 성추행하고 모욕까지 한 50대 건설현장소장이 실형형. ○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허윤범 판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8일 오후 4시께 전주 시내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순댓국집에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부한 일용직 노동자 A(여·50)씨의 영영이를 만지고 다른 노동자들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거론하며 모욕한 혐의(강제추행·모욕)로 기소된 아파트 건설

현장소장 B(59)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5년간 공개 명령을 내렸다는 것. ○허 판사는 "추행과 성희롱 장소가 다른 동료들도 있었던 곳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 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상급자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덕남동 임야, 싸게 팝니다.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7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20만원에 매매 됨 (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